

이산상봉 예정대로... 선발대 15명 방북

〈20~25일〉

남북, 7년만의 고위급 접촉 3개항 합의

향후 남북관계 발전 서로 노력키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로 노력하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선발대 15명도 방북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남북이 관문점에서 지난 14일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3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남북 합의사항은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협의 등이다.

필요성이 있었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북한 역시 체제 안정과 경제난 해결 등을 위해 안정적인 대외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날 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은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후퇴하면서 “남쪽을 믿어보겠다”고 예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다시 갖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뒤인 내달에는 고위급 접촉이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접촉 결과에 따라 분야별 후속 회담이나 아니면 더욱 높은 급의 당국회담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지금까지와 다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진전의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한 대로 올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지도 관심사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예정대로 우리측 선발대도 15일 행사가 열릴 금강산을 방문했다. 우리측 선발대 15명은 이날 동해선 육로로 통해 방북,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행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

7년 만에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3개 항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직 첫걸음을 댄 것에 불과하지만 오랜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우선 나온다.

특히 이번 접촉은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서로 대리하는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가 전면에 나서 벌인 ‘대리 탐색전’ 성격이 짙었다.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번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북 모두 관계개선의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측 선발대가 지난 15일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찾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인 임성훈 나주시장으로부터 혁신도시 공청회와 공공기관 이전 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주시 제공)

“혁신도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가져올 것” 손학규, 나주 현장 방문... 임시장 “KTX 나주역 경유”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15일 나주를 방문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AI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손 고문은 나주 지식교 AI 방역초소를 찾아 “AI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근무중인 경찰과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손 고문은 이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임성훈 나주시장으로부터 혁신도시 공사 진척 현황과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관련해 설명을 들었다.

손 고문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가 나주를 방문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AI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훈 시장은 “광주·전남의 교통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혁신도시 임직원들을 위해서도 KTX 나주역 정착 증진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손 고문은 이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임성훈 나주시장으로부터 혁신도시 공사 진척 현황과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관련해 설명을 들었다.

손 고문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가 나주를 방문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AI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훈 시장은 “광주·전남의 교통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혁신도시 임직원들을 위해서도 KTX 나주역 정착 증진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광주시의회 “市도 담배소송 동참하라”

흡연피해 소송 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흡연피해 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역의회에서 담배 소송 참여 촉구 결의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광주시는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양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실효성 있게 책임을 묻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도 정부와 광주시에게 요구했다.

시의회는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경제·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데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46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들과 2060억 달러의 배상합의를 하고,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캐나다의 사례도 이번 결의의 근거가 됐다.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자치단체의 소송 참여의 시발이 될지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각 지역분부는 흡연피해 구제운동, 금연 캠페인을 펼치며 자치단체의 소송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흡연피해 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역의회에서 담배 소송 참여 촉구 결의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광주시는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양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실효성 있게 책임을 묻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도 정부와 광주시에게 요구했다.

시의회는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경제·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데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46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들과 2060억 달러의 배상합의를 하고,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캐나다의 사례도 이번 결의의 근거가 됐다.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자치단체의 소송 참여의 시발이 될지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각 지역분부는 흡연피해 구제운동, 금연 캠페인을 펼치며 자치단체의 소송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측 가족 상봉 전날 속초서 방북교육

이산상봉 남은 일정은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오는 20~25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애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는 일만 남게 됐다.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13일 기준으로 우리 측 인원 100명이 머무르며 제설과 속도 점검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상봉 행사는 총 6일간 2박3일씩 1, 2차로 나뉘어 열린다. 20~22일에는 남측 상봉 대상자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을 먼저 만나고, 이어 23~25일에는 북측 상봉 대상자들이 남한에 사는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14일 현재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84명, 북측 대상자는 88명이다. 지

난해 9월 당시 확정된 상봉 대상자는 남측 96명, 북측 100명이었지만 사망,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전체 인원이 크게 줄었다.

1, 2차 상봉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각각 상봉 전날 강원도 속초 속초에 집결해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오전 8시30분 속초를 출발,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상봉 첫날에는 이산가족 면회소 또는 금강산호텔에서 단체상봉 후 환영 만찬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개별상봉, 공동종식, 가족 단위 상봉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에는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한 후 오후 1시께 귀환하게 된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오는 20~25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애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는 일만 남게 됐다.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13일 기준으로 우리 측 인원 100명이 머무르며 제설과 속도 점검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상봉 행사는 총 6일간 2박3일씩 1, 2차로 나뉘어 열린다. 20~22일에는 남측 상봉 대상자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을 먼저 만나고, 이어 23~25일에는 북측 상봉 대상자들이 남한에 사는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14일 현재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84명, 북측 대상자는 88명이다. 지

난해 9월 당시 확정된 상봉 대상자는 남측 96명, 북측 100명이었지만 사망,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전체 인원이 크게 줄었다.

1, 2차 상봉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각각 상봉 전날 강원도 속초 속초에 집결해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오전 8시30분 속초를 출발,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상봉 첫날에는 이산가족 면회소 또는 금강산호텔에서 단체상봉 후 환영 만찬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개별상봉, 공동종식, 가족 단위 상봉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에는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한 후 오후 1시께 귀환하게 된다.

연합뉴스

靑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다”

청와대는 16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현재 여러 부분에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어떤 토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다음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하라고 한국에 타진할 방침이며,

일본 정부에서는 회담 성사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요청은 상대방(일본 정부) 자유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며 지나친 보도”라며 “현재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토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실효성 있게 책임을 묻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도 정부와 광주시에게 요구했다.

시의회는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현재 여러 부분에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어떤 토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다음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하라고 한국에 타진할 방침이며,

박지경기자 jkpark@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